

경영진 두들겨패는 노조가 웬말

지난 주말 민노총이 주도한 노동계 시위 과정에서 불법 폭력 행위가 난무(亂舞)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S&T그룹 계열사인 S&T기전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의 경영진 폭행 사건 여파로 직장폐쇄 조치까지 취해졌다. 또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대전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죽창이 난무하며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150여명이 다치는 폭력으로 얼룩졌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특히 S&T기전의 경우는 그룹 오너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가해 충격적이다. 노조의 농성 소식을 듣고 이 회사를 찾았던 최평규 회장을 비롯 회사임직원 6명이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더구나 이번 농성은 임금협상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내걸고 이뤄지고 있는데다 최 회장은 사원 복지확대를 위해 최근 사재 출연까지 한 상황이어서 더욱 어이가 없다.

화물연대의 불법 폭력시위 또한 한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노총 측은 “경찰이 불법시위를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팠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의 충돌은 화물

연대가 당초 약속했던 1.6km 거리행진 범위를 벗어난 탓에 야기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기 위해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가하는 죽창까지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고 차량이 파괴되는 폭력사태로 이어진 것이고 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불법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하루가 멀다하고 폭력시위가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천명하면서도 언제나 말로만 그쳐왔던 게 악순환(惡循環)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정말 이번만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 죽창 사용자는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핵심간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지극히 당연하다. S&T기전 사건 또한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법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S&T그룹 최평규 회장 '외부세력' 이 집단 폭행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또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05년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노조원들로부터 사내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이후 세 번 째다.

S&T는 최 회장과 제만호 S&T기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 180여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부산에 있는 S&T기전 공장에서 불법 천막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15일 대화를 위해 현장을 찾은 최 회장 등을 폭행했다는 게 S&T 측 설명이다.

노조원들은 지난 13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닷새째 S&T기전 생산현장을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노조원 전환배치 원상회복 △유휴 인력 전환배치 △일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조간부 2명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S&T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은 올해 S&T기전의 임금교섭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금속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노조 대응력이 취약한 S&T기전을 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S&T기전은 16일부터 전 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회사 시설보호 요청과 함께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측은 “S&T기전 경영진과 관리직 40여명이 노조 간부의 차량을 부수고 노조 천막을 철거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노조 지부장과 천막을 지키던 조합원 6명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이 노조원들의 폭행에 쓰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이어서 노사

갈등이 있을 때마다 봉변을 당했다. 2005년 5월에는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사내에서 금속노조원 5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 사고로 최 회장은 목척추 파열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100여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다.

최 회장은 당시 본지와 가진 병상 인터뷰에서 “노조는 한번 부당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한다”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보란 듯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었다.

S&T기전 점거 금속노조원들 현장 찾은 최회장에 욕설·구타 병원으로 후송·입원 치료중

직장 폐쇄·관련자 형사고소

최 회장은 2007년 7월에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S&T대우 본사 건물과 사내 식당으로 난입해 무단 점거하는 과정에서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사측 관계자는 “그동안 주력 계열사인 S&T중공업 S&TC 등의 임금 동결안을 무분규로 이끌어내며 노사 신뢰를 쌓아온 터여서 이번 폭력사태의 상처가 최 회장에게는 더욱 뼈아프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980년대 ㈜삼영을 설립한 뒤 2003년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을 인수, 만성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전환시켰다. 그동안 자신의 월급과 법인카드를 반납한 것은 물론 개인돈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까지 지급해 화제가 됐다. 지난달에는 직원 자녀 어학연수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본인 명의 주식배당금 14억원 전액을 출연했다. 장창민/부산=김태현 기자 cmjang@hankyung.com

夏闘 키우려 폭력 또 폭력...살아나는 경제 ‘발목’ 우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부산 S&T기전 사내에서 최광규 S&T그룹 회장을 둘러싼 채 뒷목을 잡아끌고 있다(위). 최 회장이 폭행을 당한 뒤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다. S&T그룹 제공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도 27일부터 총파업 정부 “경제전반 큰 타격...초기에 도화선 끊겠다”

“전선 확대하겠다.”(노동계) “초기에 도화선을 끊겠다.”(정부)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고 정부가 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초 보여줬던 화해 무드는 사라지는 분위기다. 올 연말까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노동계 현안이 얹혀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하투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가 다시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되는 파업 도미노

건설노조는 18일 “지난 10~15일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됨에 따라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굴삭기, 덤프트럭, 레미콘 차주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됐으며 총 조합원 수는 2만3000여명이다. 건설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전국 건설 현장의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플랜트건설노조도 이날 파업에 참여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플랜트건설노조는

화물연대,건설노조 등과 같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로 국내 주요 석유화학 및 제철단지의 플랜트 협력업체에 소속돼 공장 건설과 유지 보수를 주로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뤄졌다. 총 조합원 수는 2만5000여명에 이른다. 화물연대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파업 중이거나 추진 중인 노조의 조합원 수가 총 6만여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각종 집회와 파업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우선 오는 22일 금속노조가 간부들의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 또 한번 경찰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이달 말께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8일 2400여명의 정리해고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라서 노조 측은 그 전에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가 파업에 들어가면 현대차,기아차,GM대우 등 금속노조 소속 다른 사업장의 연대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6월13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 중이다. 민주노총은 연쇄 파업을 통해 동력을 확보한 후 6월말께는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파업일정 주요 쟁점

- 화물연대 파업결의(5월16일)
- 건설노조.5월27일 2만명 상경 집회
- 민주노총.6월 전국민 총궐기의 달 선정
- 쌍용차노조.6월8일 정리해고 통보 맞서 파업 예정
- 민주노총.6월10일 국민총불대행진
- 민주노총.‘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등 MB악법 철폐 투쟁

◆노·정 모두 강경한 이유는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최근 흔들리고 있는 조직력을 복원하고,내부 결속도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총은 올초 성폭력 비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데다 올 들어서만 10곳이 넘는 기업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는 등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다. 산하 노조들이 지도부 방침을 어기고 노사화합을 선언하는 등 권위도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투를 통해 지도부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을 뭉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밖으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노·사·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이를 통해 △오는 6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인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9월 국회 상정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년 초 시행 예정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 등 연말까지 이어지는 노동 관련 이슈에서 최대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번 화물연대 사태가 노동계 연쇄 파업의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칫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 노동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재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이유다. 특히 화물연대나 금속노조 등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가 이번 과격 시위로 인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물론 정부나 노동계 모두 대화를 통한 해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노동계로서는 경제위기 속에 파업을 벌이면 여론의 파가운 시선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계의 다양한 요구에 무조건적인 강경 태도를 취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에 노·정 교섭을 제안키로 했다. 정부도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노동계와의 토론 창구는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쌍용차 문제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 등 당면 노동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얼마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기업 회장 구타하는 민노총은 막가파인가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부 조합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조 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회사 최고경영자를 발로 차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폭력행위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조 측은 그룹 계열사인 S&T기전이 업무위탁을 하는 하도급업체 직원 100여 명이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을 지난 3월 말까지 정규직화하겠다는 2007년 노사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본래 정규직인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정규직화 대상이 아니며 농성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일축한다.

폭력이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도 노조와 회사 측이 구구한 설명을 하지만 최 회장의 물리적 행동을 지적하기에 앞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노조가 더 큰 잘못을 저지

른 셈이다.

S&T기전 노조원은 23명이다. 그런데도 회사 앞마당에서는 민노총 산하 타사 조합원 100여 명이 몰려와 불법 농성을 벌이고 이들이 결국 집단폭행을 저질렀다. 이미 불법을 저지른 노조원들이 또 다른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사측은 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을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하니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노총은 더 이상 불법적인 투쟁의 사령탑이 돼선 안 된다. 이번 S&T기전 사건은 이달 중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세를 규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화물연대 파업장에서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소속원들이 죽창을 휘둘러 경찰 100여 명을 부상당하게 한 것도 지탄받아 마땅하다.

민노총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그들에 대한 국민 시선은 싸늘해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폭력은 스스로 존립기반을 허물어뜨릴 뿐이다.

분쟁 노사 둘 다 맞기만?

S&T기전 “노조원이 회장 폭행” 노조 “우리가 다쳐”

노조간부 징계 철회 등을 둘러싸고 분쟁 중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S&T기전에서 S&T그룹 최평균 회장 등 임직원들이 노조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T기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금속노조 조합원 180명이 회사 앞 마당을 점거하고 노조간부 징계 철회, 생산라인 비정규직 15명 정규직 전환, 유휴인력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 왔다. S&T기전은 자동차용 모터 생산업체로 직원은 60여명이다.

이에 최평균 그룹 회장과 제만호 S&T기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이 15일 현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해 18일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사측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의 불법폭력과 조업방해 행위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며 16일 전 사업장에 직장폐

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원들이 임금협상과는 무관한 불법집회를 열고 집단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하고 불법폭력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회사 경영진과 관리직 40여명이 노조간부의 차량을 부수고 천막을 철거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때문에 차 해도 지부장과 천막을 지키던 조합원 6명이 다쳤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소속 S&T기전 현장위원회 측은 “지난달 21일 지방노동청의 조정신청이 종료된 후 생활임금 쟁취,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등 요구사항을 내걸고 합법적인 쟁위행위에 돌입했다”며 회사 측의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차 지부장 등 피고소인 20여명을 불러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노사가 대립 중인 부산 기장군 S&T기전 노사가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18일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15일 충돌에서 최평균 S&T그룹 회장이 노조원에게 맞아 쓰러져 있고(왼쪽사진) 한 노조원도 같은 날 사측에 맞아 넘어져 있다.

부산=연합뉴스

농성장서 노사충돌 '폭력공방' S&T기전 직장폐쇄 '책임공방'

회장·금속노조지부장 입원...가해 주장 엇갈려

에스앤티(S&T) 그룹의 자동차 직류모터 제조업체인 부산 기장군의 에스앤티기전(대표 제만호)이 올해 교섭과 관련해 쟁의중인 노조와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뒤 직장폐쇄에 들어갔으며,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8일 에스앤티기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에스앤티 노조 농성장에 갑자기 최평규 그룹 회장이 경영관리직원 40여명을 데리고 나타나 천막과 차량을 부수며 노조원들과 충돌을 빚고, 연설을 하려던 차해도 금속노조 지부장을 넘어뜨려 허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최 회장은 회사 직원이 부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입원했으며, 에스앤티기전은 16일 0시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차 지부장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려는데, 최 회장이 갑자기 달려들어 차 지부장의 마이크를 든 손과 몸을 잡고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며 "이 때문에 2년 전 허리 수술을 받았던 차 지부장이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 지부장 외에도 7명의 노조원이 최 회장과 경영관리직들이 휘두른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는데도 에스앤티기전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법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폭력사태 원상 회복 및 직장폐쇄 철회 △불법 대체근로 중단 △정규직 17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소사장제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에스앤티기전 회사 측은 "금속노조 지부의 사내 불법 천막농성 및 업무방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노조원 180여명이 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했다"며 "이 때문에 최 회장 등 임직원 6명이 허리와 목 등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회사 측은 또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웃소싱(소사장제)을 통해 공장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채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에스앤티기전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과 회사 쪽의 단체협약 위반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14차례 교섭을 벌여왔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가 조정절차를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생활임금 쟁취 및 비정규직 15명의 정규직화 합의 이행' 등을 주장하며 4월21일 이후 4차례 1~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여왔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15일 있었던 에스앤티 농성장 노사 충돌에 대해 회사 측은 최평규 에스앤티 그룹 회장(위 사진 가운데)이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목살을 잡히고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최평규 회장이 연설하러던 차해도 금속노조 지부장을 넘어뜨려 허리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차 지부장이 마이크를 든 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있다.(아래 사진) 사진 에스앤티·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제공

사측 “금속노조, 자신들 정치 영향력 키우려 악용” 노측 “부당 해고 등 노조 탄압하는 최 회장 때문”

충돌 잦은 S&T 노사 왜

최평규 회장이 노조원에게 폭행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T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5년 5월 경남 창원 의창구 통일중공업(현 S&T중공업) 사내에서 징계 해고된 노조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속노조원 5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척추 3개 부위의 디스크 파열로 중추신경이 압박받는 증상)으로 10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2007년 9월에는 S&T대우(옛 대우정밀) 노조의 부산 공장 점거 농성에 맞서 사내 식당에 혼자 들어가 ‘불법 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하기도 했다.

S&T그룹은 2003년 통일중공업 인수 뒤 거의 해마다 계열사별로 노사 분규를 겪고 있다. 그룹 측에 따르면 3500명 직원 중 1600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다. 그리고 중심에는 항상 최 회장이 있었다. 폭행과 단식 등 최 회장과 노조가 첨

예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주장은 다르다.

회사 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도 “최 회장이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무시하고 사람을 부당 해고하는 등 노조를 탄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반박한다.

S&T그룹의 송주영 홍보부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임금·단체 협상 범위를 벗어난 경영권 관련 사항”이라며 “그룹 소속의 노조원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을 가진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반해 금속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유장현 교육선전부장은 “M&A를 통해 회사를 키워온 최 회장은 인수하는 곳마다 기존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원에 대한 부당 징계와 해고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염태정 기자

사측 “회장 먹살 잡히고 맞아” 노측 “사측이 먼저 폭력 썼다”



S&T기전 부산공장에서 최평규 회장(점선 내)이 노조원에게 폭행당하고 있다.

[S&T 제공]

15일 S&T기전에선 무슨 일이

15일 오후 1시쯤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S&T기전 본관 앞.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과 S&T기전 현장위원회(일종의 노조) 180명이 13일부터 대형 천막을 쳐 놓고 농성 중이었다. 현장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부산지방노동청의 조정신청이 끝나고 15명 정규직 전환과 노조간부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합법적인 쟁위 행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S&T그룹 최평규 회장 등 회사 임직원 40여 명이 농성장을 찾았다. “외부인이 주도하는 불법 농성이므로 무단점거를 풀고 천막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

룹 측은 “최 회장이 조합원들에게 먹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맞는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 측의 얘기는 다르다. S&T기전 현장위원회 신한숙(47·여) 대표는 “최 회장 일행이 임직원 40여 명과 들이닥쳐 천막을 칼로 찢고 무너뜨렸다”며 “당시 천막 안에는 조합원 6명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무너뜨리기에 동지들에게 지원요청을 했고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달려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이 차 지 부장을 허리를 안고 넘어뜨린 것이지 머리로 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합법적인 쟁의행위 돌입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먼저 폭

S&T 회사 측

“임직원 6명 심하게 다쳐

노조 폭행 장면 동영상 확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 6명 있던 천막에

40여 명 들이닥쳐 칼로 찢어”

의 주장이 맞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 등 회사 측 임직원 6명과 노조 측 7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심한 욕설과 함께 최 회장의 먹살을 잡는 등 집단 폭행을 했다”며 “최 회장이 쓰러질 때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 정밀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해도(50) 부산·양산지부장이 머리로 최 회장의 가슴을 밀었고 다른 조합원들은 주먹으로 때리고 옷자락을 잡아당겨 최 회장을 넘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제만호 S&T기전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5명도 심하게 다쳤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 S&T그

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차해도 지부장 등 조합원 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것이다.

S&T기전 노사는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임금 인상을 위한 교섭과 조정 과정을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만호 대표는 18일 담화문을 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가 없었고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들을 정당화하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최 회장) 스스로 자행한 모든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부산=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금속노조원, S&T회장 또 폭행

4년새 3번째... 회사, 직장폐쇄
금속노조 "최회장 먼저 폭력"

최평규 S&T그룹 회장이 민주노총의 금속노조 조합원으로부터 또 폭행당했다.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쯤 되면 '악연'을 넘어 최 회장의 '금속노조 수난사'라고 불려도 될 듯하다.

S&T그룹은 최 회장과 임직원 6명이 지난 15일 부산의 S&T기전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최 회장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S&T기전은 금속노조 노조원들을 검찰에 고소하고, 경찰에 회사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또 불법 폭력과 조업방해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



지난 15일 부산 S&T기전 사업장에서 최평규(원 안) 회장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S&T기전 제공

가능하다고 판단,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낮 12시쯤 최 회장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에 와서 금속노조 차해도 지부장을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렸다."면서 "최 회장과 경영 관리자들의 폭력으로 차 지부장을 포함해 7명의 조합원들이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서울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최평규 S&T그룹 회장(원 안)이 15일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위치한 S&T기전 앞마당에서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에게 먹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한 뒤(오른쪽 사진)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 제공 S&T기전

금속노조 - S&T회장 집단폭행 공방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농성 과정에서 서로 폭행을 당했다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S&T대우, S&T중공업 등 5개 상장사를 비롯해 21개 계열사로 구성된 S&T그룹은 15일 낮 부산 기장군 정관면 S&T기전 사업장에서 최평규 회장 등 임직원 6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 2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최 회장 등을 둘러싸고 먼저 폭행했고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른 임직원들도 허리, 목, 인대에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금속노조는 “최 회장이 연설하려는 차해도 지부장을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최 회장은 노조 간부의 승용차를 발로 찼고 노조원 6명도 회사의 관리직원 40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 회장은 예전에도 경남 창원시 소재 계열사의 노사갈

회사 “둔기 맞고 쓰러져 입원”
폭행 조합원 고소-직장폐쇄
노조 “회장이 노조 간부 폭행”



회사 관계자들과 충돌해 마이크를 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차해도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사진 제공 금속노조

등 현장에 나타나 폭행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주장한 폭행 사태는 최 회

장 등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S&T기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시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조합원 180여 명은 하급단체인 S&T기전 현장위원회 대표 신모 씨가 회사 폐쇄회로(CC)TV 파손 및 경영권 침해 문제로 회사의 징계를 받은 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13일부터 사내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S&T그룹 임직원은 3500여 명으로 지난해 1조5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며 주로 부산과 경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S&T기전은 전체 임직원이 60여 명으로 이 중 금속노조 조합원은 23명이다.

S&T기전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폭력과 업무방해 행위 때문에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16일부터 사업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태다. 또 부산 금정경찰서에 회사 시설보호 요청을 하는 한편 폭력에 가담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부산 S&T기전 勞使 폭력 충돌

使측 “그룹회장 등 6명 폭행 당해”... 勞측 “회사가 먼저 폭력 유발”

부산 기장군 정관면 S&T기전 회사 내에서 노조 측과 회사 경영진 간 폭력 사태가 발생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S&T기전 측은 지난 15일 최평규 S&T그룹 회장과 제만호 S&T기전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6명이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4일째 치료를 받고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S&T그룹은 자동차 모터를 생산하는 S&T기전을 비롯해 S&T중공업 등 11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지난 13일부터 회사 내 운동장에 노조 측이 쳐 놓은

농성용 천막을 직접 철거하려 했고, 시위를 하는 노조간부의 마이크를 뺏는 등 시위를 제지하려고 하다가 맥살을 잡히고 노조원과 뒹구는 과정에서 수차례 노조원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회사 측은 금속노조원 180여명의 불법폭력과 조업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6일 직장폐쇄를 하고 차해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노조원 20여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반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데 회사경영진과 관리직 40여명이 노조간부 차

량을 부수고 노조천막을 뜯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차 지부장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다치고 천막을 지키던 조합원 7명이 부상했다”며 “최 회장 측이 폭력사태를 먼저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S&T기전 직원 60여명 중 금속노조원인 23명은 지난달 노사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3일부터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회사 앞마당에 대형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여왔고, 사측은 천막 철거 및 업무방해 행위의 중단을 수 차례 요청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S&T기전 직장폐쇄

민노총 금속노조원, 회장 집단폭행
회사 측 “정상적 생산활동 불가능”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S&T기전(주)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폭력과 조업방해 행위로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7일 0시를 기해 직장폐쇄했다. <관계기사 4면>

S&T그룹 산하 S&T기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 최평규(57) 그룹 회장과 S&T기전 제만호(49) 대표이사 등 회사 임직원 6명이 금속노조 조합원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해 4일째 입

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회사시설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폭력을 주도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회사 경영진과 관리직 40여 명이 노

2009년 05월 19일 001면

조천막을 철거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조합원 7명이 부상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 소속 S&T기전 현장위원회는 “비정규직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등을 요구하며 합법적인 쟁위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